

# 손흥민, 절묘한 힐킥 결승골... 선발 '눈도장'



토트넘의 손흥민이 28일(현지시간) 영국 왓퍼드에서 열린 원정경기에서 1-1로 맞선 후반 44분 결승골을 터뜨린 뒤 동료 키예런 트리피어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EPL 19R 왓퍼드 원정 후반 44분... 토트넘 2-1 승 3위 이끌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에서 한동안 골을 기록하지 못했던 '손샤인' 손흥민이 화려한 부활포를 쏘았다.

손흥민은 28일(현지시간) 영국 왓퍼드에서 열린 2015-2016 EPL 19라운드 왓퍼드와 원정 경기에서 1-1로 팽팽히 맞서던 후반 23분 교체출전, 경기 종료 직전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렸다. 무승부 기운이 감돌던 후반 44분 손흥민은 키어런 트리피어의 크로스를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했다.

부상 복귀 후 좀처럼 선발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던 손흥민이 결정적인 순간 한 방으로 팀내 입지를 넓히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6일 안더레흐트(벵기에)와의 경기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른 손흥민은 지금까지 리그 경기에서 후반 조커로 출전,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27일부터 1월 4일까지 연발연서 약 1주일간 팀당 3경기씩 치르는 EPL 박싱데이는 강행군 속에서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필요한 만큼 손흥민의 출전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손흥민은 3번의 기회 중 첫 번째 경기였던 26일 노리치시티전에서 후반 33분 교체투입됐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해리 케인이 EPL 19경기에서 11골을 터뜨릴 정도로 득점 감각에 몰이 올랐을 뿐 아니라 최근 델리 알리와 에릭 라멜라 역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만큼 공격진에서 손흥민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 우려도 높아졌다.

하지만 손흥민은 왓퍼드전 결승골로 이런 걱정을 불식시키며 자신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흥민이 EPL 경기에서 골을 넣은 것은 9월20일 크리스털 팰리스와 경기 이후 3개월여만이다. 손흥민은 정규리그 2호 골이자 시즌 4호 골로 팀을 리그 3위로 끌어올렸다.

손흥민은 결승골 상황에 대해 "크로스가 넘어오는 순간이 느끼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29일 토트넘 홈페이지에 올라온 인터뷰를 통해 EPL 왓퍼드 원정전에서 1-1로 팽팽히 맞서던 경기 종료 직전 결승골을 터뜨린 데 대한 소감을 밝혔다.

손흥민은 "크로스가 완벽하게 넘어왔다"면서 "조금은 운이 좋았다"고 감사를 보였다. 또 "내 활약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매우 멋졌다"면서 "우리 팀이 승점 3점을 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골을 넣어 기쁘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부상 복귀 후 벤치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매우 열심히했다. 왓퍼드전이 쉽지 않았지만 다시 득점해서 좋다"면서 "다음 경기를 위해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오랜만에 골맛을 본 손흥민은 내년 1월 4일 오전 1시(한국시간) 리그 11위 에버턴과의 원정경기에서 다시 한번 골사냥에 나서며 본격적인 선발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 기성용-이청용 싱거운 '쌍용 더비'

### 나란히 교체 출전... 공격포인트 없이 0-0 무승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청용(27·크리스털 팰리스)과 기성용(26·스완지시티)이 맞대결을 벌였다.

이청용과 기성용은 2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와 스완지시티의 경기에서 나란히 후반 교체 선수로 투입됐다. 먼저 스완지시티 기성용이 후반 11분

무 상송세를 이어갔다. 반면 스완지시티는 4승7무8패로 승점 19를 기록, 17위로 한 계단 내려섰다. 기성용과 이청용은 후반 30분경 스완지시티 문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한 차례 공을 놓고 경합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들 전 웨스트브룩과 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터뜨린 기성용은 후반 20분 심판 휘슬이 울린 뒤에 공을 강하게 차 옐로카드를 받았다.

22일 첫 말을 얻은 이청용은 23일 귀국해 국내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뒤 영국으로 이동, 이날 경기에 출전했으나 팀 승리까지 일궈내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 전남드래곤즈 신인 5명 선발

프로축구 전남드래곤즈가 2016시즌 전력 강화를 위해 자유선발(3명)과 우선지명(2명)으로 5명의 신인선수를 선발했다.

2015 아시아대학 축구대회 대학선발에 뽑힌 아주대 김경재(22)와 함께 호남대 고태원(22), 건국대 한지원(21)이 자유계약 선수로 전남 유니폼을 입었다. 2012시즌 우선 지명을 받은 뒤 대학부대에서 경험을 쌓은 우측 공격수 허용준(22)과 2015 K리그 주니어 전국고등리그(전기리그) 득점 상에 빛나는 광양제철고 한찬희(18)는 우선지명으로 K리그에 데뷔한다.

중앙수비수인 김경재는 184cm·75kg의 체격을 갖췄으며 민첩성과 순간 스피드, 상대 공격수에 대한 대인마크와 협력 수비가 뛰어난다는 평가다. 2015 태백산컵 아시아대학 친선축구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187cm의 장신인 고태원 역시 중앙수비수로 높은 타점을 이용한 헤딩력과 공간 장악능력이 뛰어나다. 일대일



왼쪽부터 한지원, 김경재, 고태원, 한찬희, 허용준. (전남 드래곤즈 제공)

수비와 몸싸움에 강한 고태원은 지구력과 체력이 좋아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다. 한지원은 중거리 슈팅과 킥이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다. 2015년 아시아 대학 축구대회 및 베트남 국제축구대회에 출전한 한지원은 U-22 청소년대표도 활약중인 기대주다.

전남 유스 출신인 허용준은 뛰어난 테크닉과 순간 돌파력으로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친 전남의 유망주다. 올 시즌 전국 추계대학 축구연맹전에서는 득점상을 수상

하며 뛰어난 골감각을 과시했다.

광양제철고를 졸업하고 바로 프로로 뛰어들게 된 한찬희는 '제2의 지동원'으로 눈길을 끄는 자원이다. 화려한 드리블과 패시력, 득점력을 두루 갖춘 공격형 미드필더로 2015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와 2015 K리그 U-18 챔피언십 우승을 이끈 주역이다.

전남의 새 얼굴이 된 5명의 선수는 내달 3일 선수단에 합류해 프로무대 데뷔를 준비한다. /김여울기자 wool@

## PGA·LPGA 올 시즌 누가 울고 웃었나



### 리디아 고 최연소 상금왕·메이저 우승 박인비 한국인 첫 '커리어 그랜드슬램'



### 우즈 '80타' 밥먹듯...황제 체면 구겨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2015 시즌에도 스타 선수들의 명암은 엇갈렸다.

최고의 시즌을 만끽한 선수는 따뜻하고 풍성한 겨울 오프시즌을 즐긴 반면 부상과 부진으로 시즌을 망친 스타 플레이어는 연말이 쓸쓸하다.

PGA투어와 LPGA투어를 통틀어 가장 값진 1년을 보낸 선수는 남자 세계랭킹 1위 조던 스피스(미국)를 꼽을 수 있다. 스피스는 올해 메이저대회 2연승을 포함해 5승을 올렸고 상금왕, 다승왕, 평균타수 1위, 세계랭킹 1위, 그리

고 올해의 선수상을 휩쓸었다.

불혹의 나이를 앞두고 브리티시오픈 우승컵을 거머쥔 잭 존슨(미국)과 40대 노장 투혼의 대명사로 등장한 짐 퓨릭(미국), '영건' 선두 주자로 자리 매김한 뉴질랜드 동포 대니 리(이진명)도 2015년을 풍성했다.

LPGA투어에서는 리디아 고(고보경)가 새로운 골프 여제 대관식을 치렀다. 데뷔 전부터 각종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운 리디아 고는 박인비(KB금융)와 치열한 경쟁 끝에 LPGA 투어 사상 최연소 상금왕에 최연소 메이저대회 우승

이라는 위업을 이뤘다.

박인비도 리디아 고 못지않은 최고의 1년을 즐겼다. 메이저대회 2승을 올린 박인비는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으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또 평균타수 1위를 차지하면서 최연소 명예의 전당 입회 자격마저 갖췄다. '수퍼루키' 김효주(롯데)를 따돌리고 신인왕을 차지한 김세영(미래에셋)도 만족스러운 1년을 만끽한 선수로 꼽힌다. 38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개인 통산 17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린 크리스티 커(미국)도 2015년을 잊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을 악몽처럼 보낸 선수라면 타이거 우즈(미국)를 첫 손가락에 꼽는다. 부상과 재활을 되풀이한 우즈는 간간히 출전한 대회에서 80대 타수를 밥먹듯 적어내 옛 골프황제의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칩샷 입스 증세마저 보인 그는 허리 수술로 시즌을 접었다. /연합뉴스